

식민지 시기 신춘문예 제도와 작문 교육* -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손 동 호**

차 례

- | | |
|-----------------------------|-------------------------|
| 1. 들어가며 | 3. 『동아일보』 신춘문예 ‘작문’의 특징 |
| 2. 『동아일보』 신춘문예의 전개와 ‘작문’ 모집 | 과 의의 |
| | 4. 나가며 |

국문초록

『동아일보』의 신춘문예는 신진 작가의 발굴을 내세우며 등장하였다. 이는 독자 참여 제도의 시행 목적이 ‘독자’ 확보에서 ‘작가’ 확보로 변모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동작품은 ‘작가’ 확보와는 다른 목적에서 시행하였다. 『동아일보』는 신춘문예 시행 첫해부터 문예계, 부인계, 소년계 등으로 독자의 층위를 구분하여 작품을 모집하였다. 이는 여성과 아동이라는 새로운 독자층을 발굴하여 가정란과 아동란을 신설한 매체의 지면 혁신 정책과 연계된 작업이자, 이전 시기 독자 참여 제도의 전통 계승에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6A3A01079581)

**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HK연구교수

서 비롯된 결과였다. 문화주의를 표방하며 창간한 『동아일보』는 계몽의 차원에서 여성과 아동 독자를 호출하였다. 민족을 개량하여 문명화를 달성하기 위해 아동을 교육함으로써 근대적 주체를 양성하고자 한 것이다. 신문의 잠재적인 독자층을 확보하기 위해서나 문명화를 추진하기 위한 아동 교육의 필요에 의해서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문장 교육은 중요한 과제였다. 작문은 이러한 복합적인 배경에서 선택되어, 신춘문예의 모집 부문에 포함될 수 있었다.

신춘문예 작문 부문 당선작은 자연 묘사 및 아동의 일상을 주로 다루었다. 하지만 작문은 단순히 자연을 묘사하거나 사건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상황에서 촉발된 구체적인 감정을 드러냈다. 이를 통해 작문이 조선어 글쓰기를 통한 아동의 정서 함양을 지향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식민지 시기 총독부의 교육 정책은 조선어 교육을 폐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일보는 브나로드 운동을 주관하고, 다양한 한글 관련 기획란을 마련하여 언문철자법의 보급에 앞장섰다. 그리고 아동들에게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조선어로 된 작품을 모집, 발표하였다. 결국, 작문은 습작을 통한 조선어 글쓰기의 보급 및 아동 계몽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아동 계몽의 실질적인 내용은 정과 동정의 함양이었다. 신문의 지면개편에 관여하고 신춘문예를 주관한 이광수는 아동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근대적 사회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감정 규범으로 정과 동정을 제시하고, 그 실현 수단으로 작문을 활용하였다. 당선작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 초기 편집진의 이러한 의도가 신춘문예 시행동안 지속적으로 관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동아일보, 신춘문예, 작문, 아동, 정, 동정, 이광수

1. 들어가며

이 논문은 식민지 시기 대표적인 민간지 『동아일보』가 시행한 신춘문예 제도의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근대 매체는 문학작품의 주된 발표지면으로서 문학사 기술을 위한 물질적, 문화적 토대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근대문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체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매체의 성격이나 편집진의 구성, 그리고 매체가 상정한 독자층에 따라 매체가 선별한 문학작품의 양상도 함께 변모하기 때문이다. 근대 매체를 기반으로 한 근대문학의 역동성은 매체의 독자가 수동적인 존재에 머물지 않고 문학작품의 창작자로 변모하는 지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극적인 지위의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근대 매체가 마련한 장치, 즉 독자 참여 제도의 시행에 있었다.

한국의 근대 매체는 독자 확보를 목적으로 탄생 초기부터 다양한 방식의 독자 참여 제도를 시행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독자투고, 현상제도, 신춘문예 등을 들 수 있다. 독자투고는 매체와 독자와의 소통을 지향하였으며, 독자의 직접적인 매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도되었다. 특히 독자의 창작물을 대상으로 한 독자투고는 일방적인 수용자에서 발화의 주체로 변모하는 독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상제도는 현상금이라는 유인책을 제시하고 응모규정을 강화하여 독자투고에 비해 전문성을 확보하였다. 문예물의 경우 현상문예가 대표적인데, 초기 문학장르의 정착 및 확산에 큰 역할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문단에서 활약할 작가들을 발굴함으로써 근대 문인의 예비적 장소로 기능하였다. 신춘문예는 당선 여부에 따라 독자를 작가로 공인하는 제도로, 독자의 위상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신춘문예는 매년 정례적으로 시행되어 신인 작가를 배출하고 당선작을 발표하는 등 근대문학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이처럼 독자 참여 제도는 근대적 문학양식의 실험 및 보급, 문학 창작층의 확대, 신인 작가의 배출 등 여러 방면에서 근대문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에 따라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도 등장하였다. 먼저 김영철¹⁾은 본격적으로 독자 참여 제도를 연구하여 후속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는 1900년대의 학회지, 신문, 잡지 등의 근대 매체가 시도했던 각종 독자 참여 제도가 1910년대 『매일신보』의 현상문예를 거쳐 신춘문예로 정착했다고 설명하였다. 김영민²⁾은 한국의 근대 매체에서 독자 투고 서사물이 등장하는 과정을 독자 참여 제도와 연결지어 설명하였다. 그는 『매일신보』 이전 시기의 신문에서 선보였던 ‘신년소설’이 비전문적 작가에 의한 ‘현상 응모 단편소설’과 결합하고, 그 발표 시기를 신년 초로 확정하면서 정착된 제도가 ‘신춘문예’ 제도라고 정리하였다. 이들이 수행한 연구는 근대 초기의 신문과 잡지를 대상으로 근대 매체가 시행한 독자 참여 제도의 성립 및 정착 과정을 개괄하고, 각 제도의 성과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선행 연구 성과를 계승하여, 문단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는 1920년대 이후의 독자 참여 제도를 연구한 성과 역시 상당히 축적되었다.³⁾ 이들 연구는 식민지 시기 대표적인 매체를 대상으로 신춘문예

-
- 1) 김영철, 「신문학 초기의 현상 및 신춘문예제의 정착과정」, 『국어국문학』 98, 국어국문학회, 1987, 211-238쪽.
 - 2) 김영민, 「근대 매체의 독자 창작 참여 제도 연구(1)」, 『현대문학의 연구』 43, 한국문학연구학회, 2011, 97-128쪽; 김영민, 「한국 근대 신년소설의 위상과 의미」, 『현대문학의 연구』 47, 한국문학연구학회, 2012, 127-158쪽.
 - 3) 김춘희, 「한국 근대문단의 형성과 등단제도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 논문, 2001; 임원식, 「신춘문예의 문단사적 연구」, 국학자료원, 2003, 1-450쪽; 김석봉, 「식민지 시기 『조선일보』 신춘문예의 제도화 양상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16, 한국현대문학회, 2004, 185-220쪽; 이재복, 「신춘문예의 문학제도사적 연구」, 『한국언어문화』 29, 한국언어문화학회, 2006, 365-391쪽; 김석봉, 「식민지 시기 『동아일보』 문인 재생산 구조에 관한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32, 민족문학사학회, 2006, 153-180쪽; 박헌호, 「동인지에서 신춘문예로-등단제도의 권력적 변환」, 『대동문화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6, 5-40쪽; 전은경, 「1910년대 『매일신보』 소설 독자층의 형성과정 연구」, 『현대소설연구』 29, 한국현대소설학회,

의 기원과 전개, 그리고 제도적 특징 등을 정리하였다. 문화정치의 시행 이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창간됨에 따라 독자들의 문예 참여 통로가 더욱 확대되었고, 『매일신보』와 민간지 및 잡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신춘문예 제도를 정비해 문인 재생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갔다는 것이다. 선행 연구는 대체적으로 신춘문예의 신인 발굴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하지만 신춘문예는 신진 작가의 양성 외에도 다양한 목적에서 시행되었다. 본문에서는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신춘문예의 또다른 기능을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아동⁴⁾에게만 응모자격을 부여한 ‘작문’에 주목하여, 해당 장르의 모집 배경과 당선작의 내용적 특질 및 문학사적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신춘문예의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연구 성과가 상당히 축적되었으나 개별 장르의 당선작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6, 107-132쪽; 이희정, 「1920년대 『매일신보』의 독자문단 형성과정과 제도화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 33, 한국현대문학회, 2011, 97-133쪽; 이희정, 「1920년대 식민지 동화정책과 『매일신보』 문학연구(1)」, 『어문학』 112, 한국어문학회, 2011, 351-379쪽; 이희정, 「1920년대 식민지 동화정책과 『매일신보』 문학연구(2)」, 『현대소설연구』 48,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285-319쪽; 손동호, 「『동아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연구」, 『근대한국학연구』 21,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2016, 73-103쪽; 조재영, 「신춘문예 제도와 당선시 연구」, 『퍼플』, 2017, 7-93쪽; 손동호, 「식민지 시기 『매일신보』의 신년현상문예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20(2), 한국근대문학회, 2019, 235-270쪽; 손동호, 「식민지 시기 『조선일보』의 신춘문예 연구」, 『우리문학연구』, 우리문학회, 2020, 241-273쪽 참조

4) 실제 당선자들의 대부분은 보통학교 생도들이었고, 나이가 15세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현대의 기준으로 보자면 아동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만 당대의 기준을 따라 본문에서도 아동으로 지칭하였다. 신문사는 응모규정 및 선후감에 일관되게 ‘아동’이라 특정하였으며, 응모자의 학년(연령)을 참작하여 심사하겠다고 밝힌 점으로 미루어 아동의 층위가 넓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동아일보』 신춘문예의 전개와 ‘작문’ 모집

이 장에서는 신춘문예 모집부문에 작문을 비롯한 아동작품이 포함되었던 배경과 그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신춘문예 시행 이전에 시도되었던 독자 참여 제도를 먼저 개괄하여 아동작품 모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추적하고, 어떠한 목적에서 시도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신춘문예 ‘작문’ 모집의 의의를 도출하기 위해 모집부문에 ‘작문’이 포함된 것이 당대 매체들의 일반적인 경향인지 『동아일보』만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사례인지 확인한 후, ‘작문’ 모집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동아일보』는 발행 초기부터 독자 확보 차원에서 독자들의 신문 문예 참여를 유도하였다. 1925년 신춘문예를 시행하기 이전까지는 독자투고⁵⁾와 현상문예가 대표적인 독자 참여 제도였다. 독자투고와 현상문예의 가장 큰 차이는 응모 당선작에 대한 상금의 지급 유무에 있었다. 현상문예는 당선작에 대해 별도의 사례를 전제로 작품을 모집했기 때문에 독자투고보다 독자들의 투고열을 자극하였다. 이에 따라 모집규정도 상세하게 공지하였으며 당선조건도 까다로워졌다. 신문사의 입장에서는 현상금 정도의 투자로 양질의 원고를 모을 수 있었으므로⁶⁾ 이러한 현상제도를 확대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1923년 5월 3일 3면에는 『동아일보』 발행 일천호를 기념하여 상금 일

5) 『동아일보』 독자투고의 전개와 특징에 대해서는 손동호의 『『동아일보』 소재 ‘독자문단(讀者文壇)’ 연구』(『한국민족문화』 53,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4, 113-139쪽) 참조.

6) 김석봉은 1923년 5월에 있었던 ‘지령 1천호 기념 상금 1천원 현상 모집’에 대해 “100원 남짓의 실 지출을 통해 1,000원 규모의 행사를 주관했다는 광고 효과를 거두었으며 뿐만 아니라 이 행사를 통해 새로운 독자층을 창조하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거둔 것이다.”라고 평가하였다. 김석봉, 『식민지 시기 『동아일보』 문인 재생산 구조에 관한 연구』, 『민족문화사 연구』 32, 민족문화사학회, 2006, 164쪽 참조.

천원의 대현상을 알리는 공고가 실린다. 모집부분은 논문, 단편소설, 일막각본, 동화, 한시, 시조, 신시, 동요, 만화, 감상문, 지방전설, 향토자랑, 우리어머니, 가정개량 등으로 모집분야가 매우 다양하였다. 현상모집의 모집부분은 신춘문예와 비교할 때 매우 유사해 보이지만 세부적인 응모 규정은 달랐다. 예컨대 현상모집의 단편소설은 1행 20자로 120행 내외의 길이를 요구하였다. 이는 신춘문예 단편소설 원고 길이가 24,000자였던 것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로 소품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모집부분별 문체, 분량, 상금 등 세부규정을 제시한 점과, 다양한 장르를 포괄함으로써 아동과 여성이라는 새로운 독자를 호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로써 아동작품 모집이 독자 확보 차원에서 『동아일보』 발행 초기부터 시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1923년 5월 20일(일)까지 4면을 발행했던 신문은 『동아일보』 일천호 기념으로 12면으로 증면하고 주말까지 특별 증편 체제를 유지하였다. 이후 6월 3일부터 ‘일요호’를 신설하여 매주 일요일마다 8면으로 증면하여 발행하였다.⁷⁾ 『동아일보』 일천호 기념 현상문예가 ‘일요호’의 신설로 이어진 것이다. ‘일요호’는 ‘독자문단’, ‘소년소녀란’, ‘지방동요란’ 등으로 구성하였다. ‘소년소녀란’은 일천호 기념 현상문예의 결과로 아동을 위한 독립된 지면이 배치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독자문단’은 신시(新詩), 감상문, 동화, 단편소설, 동요 등의 장르를 세분화하여 작품을 모집하고 발표하였다. 일천호 기념 현상문예에서 당선권 안에 들지 못했던 작품들이 ‘일요호’에 실렸다는 점을 볼 때, 이러한 기획이 연속성을 지닌 작업임을 알 수 있다. 1923년 9월 2일에는 일요호에 발표할 독

7) 이해령은 『동아일보』 학예면의 시초를 ‘일요호’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일요호에 실린 문예물 중 일반 독자의 투고작품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함을 근거로 일요호의 신설 동기가 독자의 문예열을 수렴하고자 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어서 『동아일보』 학예면의 형성은 부인란·아동란·문예란 이 세 가지 섹션의 형성과정이라 정리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해령, 「1920년대 『동아일보』 학예면의 형성과정과 문학의 위치」, 『대동문화연구』5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5, 101-106쪽 참조.

자들의 원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동아문단 투고 모집』(공고8)를 내기도 하였다. 이는 부록의 형식을 취하기는 했으나 매주 일요일마다 고정적으로 독자들의 작품을 모집, 발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1923년 12월 2일(일) 1면에는 『일요호의 폐지와 월요란의 신설』이라는 제목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4면에 ‘월요란’이 신설됨을 알리고 있다. 월요란이 기존의 일요호를 계승했음을 직접적으로 선언함과 동시에 독자의 작품 역시 많이 소개하고자 한다며 투고 모집 공고를 게시하였다. 이처럼 독자투고와 현상문예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며 동시에 진행되기도 하였다.⁹⁾ 주목할 점은 독자투고와 현상문예 모두 발행 초기부터 아동작품을 모집했다는 점과, 독자층의 관심사 및 창작수준을 고려하여 모집장르 선정에 고심하였다는 점이다.

신춘문예는 이러한 여러 독자 참여 제도를 실험한 후 ‘신진작가의 발굴’¹⁰⁾ 등 새로운 시행 목적을 내세우며 등장하였다. 이는 독자 참여 제도의 기능이 ‘독자’ 확보에서 ‘작가’ 확보로 변모했음을 의미한다. 『동아일보』 최초의 신춘문예 모집공고¹¹⁾는 1925년 1월 2일 2면에 등장한다.

8) 동아문단 투고 모집. 투고의 종류는 단편소설, 일막각본, 동화(이상 순조전문으로 일행 십사자 식 일백팔십행 이내) 시조, 신시, 동요, 서정문, 감상문 기타 문예작품(이상 일행 십사자 식 팔십행 이내)됨을 요함. 투고는 우량한 자를 선택하여 지면에 발표함, 특히 가작으로 인하는 작품의 작자의게는 상품을 증정함. 번역 혹은 번안일 시는 원작의 제명과 원작자의 씨명을 명기함을 요함. 투고는 여하한 경우 이든지 총히 반환치 아니함. 투고의 봉피에는 “일요호 원고”라 명기함을 요함. 동아일보사. 1923년 10월 7일에는 근고(謹告)가 실려있다. “本日曜號에 寄稿한 諸氏 中 煙坡, 金麗水, 외흠음, 김준, 趙弘淵, 李螢月, 申必熙, 壽岩 諸氏는 住所通知 하십시오 略少하나마 賞品 進呈하겠습나다 東亞日報社 日曜號係 白”

9) 김석봉, 『식민지 시기 『조선일보』 신춘문예의 제도화 양상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16, 한국현대문학학회, 2004, 210쪽 참조.

10) 1935년 1월 10일 신춘문예선후감2 소설편에 “신인을 낸다는 데 신춘문예 모집의 본의가 있을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1935년 3월 20일에도 “신춘문예현상모집 등에서 의도한 바는 주로 신인을 얻으려는 것”이라며 신춘문예의 시행 취지에 대해서 다시금 언급하였다. 물론 제도 시행 초기부터 이러한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신춘문예에 당선되었다고 해서 등단이 보장된 것도 아니었다.

편집국장이자 학예부장인 홍명희의 주도로 문예계, 부인계, 소년계로 나누어 일반 신진작가의 원고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문예계는 단편소설과 신시, 부인계는 가정소설, 소년계는 동화극, 가극, 동요 등을 모집하였다. 『동아일보』 최초의 신춘문예는 문예계, 부인계, 소년계 등으로 독자의 층위를 구분하여 작품을 모집, 발표하였다. 이는 이전의 독자 원고 모집 전통이 신춘문예로 이어진 것이며, 여성과 아동이라는 새로운 독자층을 발굴하여 가정란과 아동란을 신설한 매체의 지면 혁신 정책과도 연동되는 작업이었다.

『동아일보』의 신춘문예는 시행 첫해부터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본사에서 모집한 신춘문예는 강호제위의 만혼 옥고(玉稿)를 얻어 짓버하기말지 아니합니다만은 넘우도 원고수(原稿數)가 만하 만혼 시일이 걸리게 됩니다 하여 부득이 同 문예작품의 당선은 오는 3월 2일 문예란

11) =薄謝進呈= 新春文藝募集/◇文藝欄·婦人欄·少年欄◇/◇종래의 문예란(文藝欄) 부인란(婦人欄) 소년란(少年欄) 등으로 힘이 자라는데까지는 보다 충실하게 하여 조금조금씩이라도 보람있게하여 보려고 본사편증국당 홍명희(編輯局長洪命憲) 씨의 학예부당(學藝部長) 겸임 아래에서 一, 文藝欄係 二, 婦人欄係 三, 少年欄係의 세가지 부문을 따로따로 독립시키고 각계에 책임자를 두어 힘과 정성을 하더라도/◇ 엇더케하여 나가는지는 장차 사실로써 보여들이려 하거니와 위선 아래의 규정으로 일반 신진작가의 작품을 모집하오니 우리의 시험을 도와주시려는 유지는 만히 투고하여 이 세 가지 란으로 하여금 금상첨화의 꽃밭을 이루게 하여주시옵/◇文藝係募集作品◇/一, 短篇小說 一等 一人 五十圓 二等 二人 各 二十五圓 三等 五人 各 十圓/二, 新詩 一等 一人 十圓 二等 二人 各 五圓/◇婦人係募集作品◇/一, 家庭小說 一等 一人 五十圓 二等 二人 各 二十五圓/◇少年係募集作品◇/一, 童話劇 一等 一人 五十圓 二等 二人 各 二十五圓/二, 歌劇 一等 一人 五十圓 二等 二人 各 二十五圓/三, 童謠 一等 一人 十圓 二等 二人 各 五圓 入選 五人 各 貳圓/◇ 이상 각데에 대하여 투고하시되 내용을 모다 각계(各係)에 특색이 나도록 부인계 투고는 부인들이 읽기에 알마즌 것으로 소년계의 투고는 반듯이 소년소녀에게 덕당한 내용을 가져야합니다 이밖에 주의하여주실 것은/▲ 投稿期限은 今月末日까지 ▲ 原稿의 數는 無制限 ▲ 原稿는 各係募集을 別封하여 文藝係면 文藝係, 婦人係면 婦人係로 보내시되 住所 氏名을 分明히 쓰실 일 ▲ 原稿는 當選與否를 勿論하고 一切返送치 아니함(밀 줄은 인용자)

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¹²⁾라는 기사가 이러한 사정을 잘 말해준다. 『동아일보』 신춘문예가 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신춘문예를 시행하기 전부터 다양한 독자투고와 현상문예 등을 시행함으로써 독자 참여 제도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고 충분한 제도적 보완을 거쳐왔기 때문이다.¹³⁾

신춘문예 시행 첫해의 흥행이 성공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26년에는 신춘문예가 시행되지 않았다. 1925년 신춘문예를 기획했던 홍명희가 1925년 4월에 퇴사하고, 1926년 11월 이광수가 부임하기까지 편집국장 자리가 공석이었다는 점에서 신춘문예를 이끌 담당자의 부재가 가장 큰 요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신춘문예 시행 첫 해인 1925년부터 신문이 폐간되는 1940년까지¹⁴⁾ 신춘문예를 꾸준히 시행하였다. 신문사의 무기정간 조치로 인해 신춘문예를 시행할 수 없었던 1937년을 제외하면 1926년 한 번만 거른 셈이다. 동아일보사의 신춘문예는 매우 정례적으로 시행되었다. 신춘문예의 모집기간은 시행 첫해에만 1월이었고, 이후부터는 11월 초부터 12월까지로 고정된다.¹⁵⁾

12) 『동아일보』 1925년 2월 16일 7면 『예고(豫告)』, 『동아일보』 1934년 12월 19일 3면 『산적한 응모원고 망췌한 고선 광경』, “본사의 신춘현상문예는 전례에 없는 실화, 만화 등을 가하여 종류에 있어서 수를 더하였을 뿐 아니라 이밖에 특별한 문과 삼대가요의 공모까지 잇었으므로 응모 총수가 실로 예년의 배량인 성황을 이루었다. 지난 15일로써 접수를 완료하고 즉시, 정리에 착수하는 한편으로 각 담당선자가 주야겸행으로 고선에 망췌하고 있다. 사진은 산적한 응모원고의 일부와 망췌한 고선광경이다.”(밑줄 인용자)

13) 당선자에게 지급하는 상금도 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단편소설의 상금은 1등 1인 50원, 2등 2인 각 25원, 3등 5인 각 10원이었다. 이 금액은 이전의 현상문예 상금보다 많은 액수였다. 또한 같은 시기 『매일신보』가 신춘문예 상금으로 1원에서 10원을 현상한 것에 비해서도 다섯 배나 많은 액수였다. 당시 『동아일보』 신문 값이 4전이고 1년 대금이 10원 90전이었음을 감안한다면 50원이라는 현상금은 독자들의 투고열을 자극할 만큼 매우 큰 액수였다.

14) 1940년 8월 11일에는 총독부 신문지통제방침으로 『동아일보』가 폐간됨에 따라 1945년 12월에 재간하기까지 신춘문예는 시행될 수 없었다.

15) 1927년에는 직전 해 10월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모집했고, 1928년에는 직전

모집기간을 당겨 심사 기간을 확보하고, 당선작을 신년초에 발표하여 신춘문예라는 명목에 맞춘 것이다. 길게는 두 달에서 짧게는 20여 일 정도만 모집공고를 냈지만 독자들의 참여가 높았던 이유 역시 정례적인 제도 시행에서 찾을 수 있다.

작문이 신춘문예의 모집부문에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1927년의 일이다. 1926년 10월 31일 1면에는 ‘신춘특별논문 급 문예작품현상모집’ 공고가 실린다. 모집분야는 기존의 문예계, 부인계, 아동계 외에 논문계가 추가되었다. 모집분야별 세부규정을 보면 우선 논문계는 ‘신춘논문’의 주제로 ‘청년운동의 진흥통일책’과 ‘농촌진흥책’을 제시하였다. ‘신춘문예’는 단편소설, 문예평론, 시가 등을 모집하였다. ‘부인란투고’는 논문과 감상문을 모집하였다. 논문의 주제는 ‘가정개량에 관한 의견’과 ‘여(余)의 혼인관’이었으며, 감상문의 주제는 ‘처(妻)로서의 나의 감상’과 ‘모(母)로서의 나의 감상’이었다. ‘아동란투고’는 작문, 시가, 서(書), 자유화를 모집하였다. 공고에 따르면 아동은 민족의 희망이요 중심이기 때문에 순결한 아동의 작품을 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조금도 어른의 침삭이나 조연 없이 순전히 아동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표현력으로 된 작품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신춘문예의 아동작품은 철저하게 아동에게만 응모 자격을 부여하였으며, 신인의 발굴과는 다른 목적에서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28년부터는 문예계, 부인계, 아동계로 나누었던 기존의 방식을 바꿔 학예부로 일원화하여 신춘문예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모집부문은 단편소설, 창작가요, 한시, 창작동화, 용의 전설, 아동작품(작문,

해 11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1929년에는 직전 해 11월 3일부터 말일까지, 1930년은 직전 해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931년은 직전 해 12월 12일부터 25일까지, 1932년은 직전 해 12월 3일부터 25일까지, 1933년은 직전 해 12월 4일부터 20일까지, 1934년은 직전 해 11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1935년은 직전 해 11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1936년은 직전 해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1938년은 직전 해 11월 18일부터 12월 15일까지, 1939년은 직전 해 11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940년은 직전 해 11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작품을 모집하였다.

가요, 서한, 일기, 자유화, 글씨)으로 기존 체제를 유지하였다. 아동들의 참여만 가능한 아동작품 모집도 계속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신문이 폐간을 맞게 되는 1940년까지 지속되었다.¹⁶⁾ 신춘문예 시행 주체가 학예부로 일원화된 이후에도 아동작품을 포함하여 모집하였으며, ‘작문’은 1931년과 1937년을 제외하고 매년 모집하였다.¹⁷⁾ 이는 당시 경쟁 매체였던 『매일신보』 및 『조선일보』의 행보와 확연한 대조를 이룬다. 『매일신보』와 『조선일보』는 신춘문예에서 작문을 모집한 것이 단지 네 차례

16) 1929년의 모집부문은 단편소설, 사(뺨)의 전설, 아동작품(작문, 가요, 일기, 자유화, 글씨), 1930년은 문예평론, 단편소설, 동화, 한시, 말(馬)에 관한 전설, 희곡, 아동작품(작문, 동요, 일기, 자유화)이었다. 1931년에는 ‘신춘대현상모집’과 ‘소년소녀신춘문예현상모집’을 각각 진행하였다. ‘신춘대현상모집’은 ‘조선의 놀이’(창가, 시조, 한시), ‘조선청년의 좌우명’, ‘우리의 슬로건’(생활혁신, 민족보건, 식자운동(識字運動))을 모집하고, ‘소년소녀 신춘문예 현상모집’은 동화, 동요, 자유화를 모집하였다. 1932년은 단편소설, 일막희곡, 동화, 시가(신시, 시조, 창가, 동요), 아동작품(작문, 습자, 자유화), 1933년은 일막희곡, 동화, 시가(신시, 시조, 동요), 아동작품(작문, 습자, 자유화), 닭의 전설, 1934년은 문예평론, 단편소설, 희곡, 시가(신시, 시조, 가요), 아동물(동화, 동요, 아동자유화, 습자, 작문), 개의 전설, 1935년은 단편소설, 희곡, 실화(고진감래기), 콩트, 시가(신시, 시조, 민요, 한시), 아동물(동화, 동요, 아동자유화, 습자, 작문), 만화, 도야지의 전설, 1936년은 단편소설, 희곡, 씨나리오, 실화, 만문(취와 인생), 시가(신시, 시조, 민요, 한시), 아동물(동화, 동요, 아동자유화, 습자, 작문), 1938년은 단편소설, 희곡, 시가(신시, 시조, 민요, 한시), 아동물(동화, 동요, 자유화, 습자, 작문), 호랑이의 전설, 일화, 만문, 1939년은 단편소설, 희곡, 시가(신시, 시조, 민요, 한시, 자장가, 엄마 노래), 아동물(동화, 동요, 자유화, 습자, 작문, 토끼의 전설), 1940년은 단편소설, 일막희곡, 씨나리오, 신시, 민요, 시조, 한시, 작곡(作曲), 동화, 동요, 작문, 자유화, 습자, 용의 전설을 모집하였다.

17) 1931년 신춘문예에는 비단 작문뿐만 아니라 단편소설, 희곡, 시나리오, 평론 등도 모두 모집부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존의 신춘문예와는 달리 ‘신춘대현상모집’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의 노래, 조선 청년의 좌우명, 우리의 슬로건 등을 모집했기 때문이다. 식자운동(識字運動) 등 구체적인 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에 이와 중복되는 작문은 모집부문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37년은 제4차 무기정간 조치로 인해 신춘문예를 시행할 수 없었다. 당시 정간의 이유는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자 손기정 선수의 유니폼에 그려진 일장기를 말소했다는 것이었다. 무기정간은 1936년 8월 29일부터 1937년 6월 2일까지 지속되었다.

에 불과하기 때문이다.¹⁸⁾

문화주의를 표방한 『동아일보』는 계몽의 차원에서 여성과 아동을 호출하였다. 1925년 8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부인란’에는 허영숙의 「민족발전에 필요한 어린아희 기르는 법」이 연재된다. 세계적으로 민족개량에 힘쓰는 이때, 힘 있는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의 혁신과 보급에 노력을 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아동 교육을 제시한 것이다. 같은 해 11월 27일에는 「안해가 되기 전에 먼저 배호고 수양하자」라는 기사가 실리는데, 이 역시 교육을 통해 당면한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었다. 아동을 실질적인 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아동 교육의 주체로 여성을 호명하여 민족의 발전을 이룩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일찍이 이광수는 민족을 개량하여 문명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시급히 개량해야 할 대상으로 가정¹⁹⁾과 아동을 지목한 바 있다. 「자녀중심론」²⁰⁾은 부모 중심의 도덕을 벗어나 자녀 중심으로 돌아가야 새로운 문명에 동참할 수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그리고 「소아를 어찌 대접할까」²¹⁾는 나이가 어리다고 아이를 함부로 대하는 통폐를 지적하며,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어른처럼 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가 이처럼 아동에 관심을 갖은 까닭은 문명화를 이룩할 주체가 바로 아동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문명화를 이루기 위해 미래세대인 아동을 교육해 근대적 주체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18) 『매일신보』의 경우 1937년, 1938년, 1939년, 1940년에만 작문을 모집하였으며, 『조선일보』도 1931년, 1933년, 1938년, 1939년 네 차례만 작문을 모집하였다. 특히 『조선일보』는 1933년에만 10편의 당선작을 발표했을 뿐 그 외에는 당선작을 선발하지 않았다. 반면에 『동아일보』는 신춘문예를 통해 꾸준하게 작문을 모집, 발표하였다.

19) 이광수가 가정 개량에 대해 쓴 글은 다음과 같다. 「조혼의 악습」, 『매일신보』 1916년 11월 23일~26일, 「조선 가정의 개혁」, 『매일신보』 1916년 12월 14일~22일, 「결혼에 대한 관견」, 『학지광』 12호, 1917.4.19, 「신생활론」, 『매일신보』 1918년 9월 11일.

20) 이광수, 「자녀중심론」, 『청춘』 제15호, 1918.5.8.

21) 이광수, 「소아를 어찌 대접할까」, 『여자계』 3호, 1918.9.

이러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자 독해력이 전제되어야만 하였다. 신문의 잠재적인 독자층을 확보하기 위해서나 문명화를 추진하기 위한 교육적 필요성에 의해서나 아동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문장 교육은 중요한 과제였다. 결국 계몽을 목적으로 아동과 여성 등 새로운 독자층을 발굴하고, 문장 교육의 차원에서 조선어 글짓기를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23년 5월 『동아일보』에 입사한 이광수는 지면혁신을 주도한다.²²⁾ 지면혁신의 핵심은 ‘민중화’로, 독자에게 지면을 공개하여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을 지향한 것에 있었다. 그로 인하여 독자의 참여로 운영되는 ‘월요란’이 신설되었다. 이광수는 1924년 1월 『민족적 경륜』을 연재하며 물의를 일으켜 퇴사하기까지 『동아일보』 편집부원으로 활동하였다.²³⁾ 그가 퇴사한 후에도 그의 아내 허영숙은 1925년 12월에서 1927년 3월까지 『동아일보』 학예부장을 맡았으며 나중에 그 후임으로 주요한이 오게 된다. 이어서 이광수는 1926년 11월 『동아일보』 편집국장이 된다. 신춘문에 모집부문에 ‘작문’이 포함되기 시작한 해가 1927년임을 상기할 때, 허영숙이나 이광수 등 편집진의 영향력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²⁴⁾ ‘월요란’은 이후 ‘부인가정란’ 및 ‘소년소녀란’이 추가 개설되어 본격적인 문예면으로 발전하게 된다. 신문사의 지면 운영 방침으로 인해 아동작품

22) 『본보의 지면혁신에 대하여』, 『동아일보』 1923년 12월 1일 1면 사설.

23) 장신, 『1924년 동아일보 개혁운동과 언론계의 재편』, 『역사비평』, 75호, 2006, 5, 242-272쪽.

24) 신춘문에 고선(考選)은 ‘본사 편집국’이 담당하였으며 이광수는 1927년 10월 1일부터 1929년 12월까지 편집고문을 맡았다. 1929년 11월 1일 주요한이 편집국장을 맡게 되며, 12월 14일 주요한이 피검되자 1929년 12월 20일부터 1933년 8월까지 이광수가 편집국장을 맡는다. 1933년 9월부터 윤백남과 김준연이 편집국총장으로 활동하며, 설의식, 백관수, 고재욱이 1940년 신문이 폐간되기까지 편집국장을 맡는다. 그리고 신춘문에 모집공고의 주체였던 학예부장은 1928년 3월부터 1930년 1월까지 이익상, 1933년 10월부터 1938년 9월까지 서항석(徐恒錫), 1939년 7월부터 폐간되기까지 현진건이었다.(동아일보편집부 저, 『동아일보사사』 권 일(1920~1945), 1975. 413-414, 503-504쪽 참조)

수급이 요구되었고, 편집진이 아동에게 지면을 제공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후 아동문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 셈이다.

3. 『동아일보』 신춘문예 ‘작문’의 특징과 의의

이 장에서는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작문이 다른 내용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의 표는 1927년부터 1940년까지의 작문 부문 당선자와 당선작을 정리한 목록이다. 신문에는 당선작과 가작, 그리고 선외작을 포함하여 전체 62편이 지면에 발표되었다.

표 1 『동아일보』 신춘문예 작문 당선작 목록

계재일	당선자	작품명
1927.01.04	황주 동명학원 승학실 ²⁵⁾ (13)	(1등) 기차 탄 소녀
1927.01.09	안성 심상소학교 정재혁(15)	(2등) 그 어느날 밤
1927.01.14	고성 창명학원 ³ 김계환(12)	(3등) 새해
1927.01.14	황주 동명학원 ⁴ 장재순(14)	(3등) 하모니가
1927.01.22	평양 광성고보 주영섭(14)	(3등) 목은 일기책
1927.01.22	경주 양동고보 ⁶ 이석채(15)	(2등) 새동생
1927.02.06	안악 명진교 ³ 정광성(12)	(3등) 기력이
1927.02.06	안악 명진교 ³ 박신규(11)	(3등) 겨울
1927.02.20	창원 일신야학교 장영옥(13)	(3등) 홍시
1927.02.20	용천 은성학원 문옥매(13)	(3등) 겨울아침
1928.01.01	개성 정여교 손귀인	새벽
1928.01.01	안악 명진교 최상선(11)	밤무(‘밤나무’의 오기)
1929.01.01	개성 지정 윤정희	집 지키든 밤
1929.01.01	당진 공보교 홍순중	천당으로 간 동생
1929.01.01	봉천 민립화흥학교 김덕계	깃븐 봄
1929.01.03	개성 고려정 김영일	봄소식
1929.01.03	안악 명진학교 김병국	새벽
1929.01.04	울산 복산동 서비봉	그리운 동생
1929.01.06	불명 김의홍	초설(初雪)
1929.01.06	광주 수피아여교 장은순	소낙비
1929.01.08	원산 공보교 이주성	어린 지계꾼

1929.01.09	영변 서부동 양준병	달밤
1929.01.10	단천 여해진 강빈	농촌의 이침
1929.01.11	봉천 민립화흥학교 김세호	해님
1929.01.13	원산 제이보교 이정섭	참봉한 이침
1929.01.14	철원 공보교 권오환	가련한 등모
1929.01.28	붓춤사 정명길	(선외) 비개인 달밤
1930.01.02	삼수 이춘학	(1등) 일기문
1930.01.02	해주 고문수	(2등) 일기문
1932.01.07	광주 김도산	(1등) 첫겨울
1932.01.08	함남 갑산 장두성	(2등) 선생님 생각
1932.01.08	화산학원2 이승주	(2등) 우리형님
1932.01.08	선천 길영운	(3등) 내동생
1932.01.09	함남 갑산 김용선	(3등) 우리집 개
1932.01.09	평양 강봉숙	(3등) 후회
1933.01.02	나남명성여자학원5 신영숙	(3등) 강아지
1934.01.02	만주 봉천홍경현보교2 이종권	(당선 갑) 주머구
1934.01.04	경성군 용성면 강덕야학원 황동아	(당선 을) 어린염소
1934.01.12	경성 소격동 허념사	(당선 을) 겨울참새
1934.01.13	강릉공보4 김춘기	(가작) 우리집 개
1934.01.24	광명보통학교 박갑용	(가작) 불상한 거지
1934.01.26	보은 회북면 박숙희	(가작) 나는 책상입니다
1934.01.27	불명 임건주	(가작) 누가 어린애를 울렸나
1935.01.02	벽동 사상동개량서당2 김석희	(갑) 시원한 바람
1935.01.05	철원 목관개량서당2 김병익	(을) 겨울
1935.01.11	영변 공보 고등과2 양국병	(을) 나의 하로
1935.01.13	무순보교5 김원찬	(을) 어머니
1936.01.01	평양 신흥학원 한차순	(1등) 편지
1936.01.05	광주 임일남	(차석) 할머니 생각
1936.01.05	원산 광명보교6 조홍원	(가작) 까치
1936.01.05	원산 광명보교6 송재복	(가작) 내가 만든 스케이트
1938.01.06	함평공보4 이병남	(1등) 어머니
1938.01.09	경성 사범부속보교3 김희창	(을) 우리집 개
1938.01.09	공주 공립보교1 김병주(8)	(을) 우리 언니
1938.01.09	경성 지득용	(가작) 우리개
1938.01.09	함남 홍원육영보교 전태진	(가작) 어밤('어제밤'의 오기)
1939.01.04	합천공심소6 김덕순	(갑) 언니
1939.01.04	영동학산공소4 전우난	(을) 어렸을 적 사진
1939.01.08	용인 공소고1 이경희	(을) 밤
1940.01.03	철원 동송공립심상소학교3 허경만	(1등) 뇌준 멧새

1940.01.03	동대문여자소학 최연희	(2등) 밤심부름
1940.01.03	태안공립소학 손순	(2등) 눈 오는 밤

신춘문예의 당선 사례를 살펴보면 종종 중복 당선이 확인되지만²⁶⁾, 작문은 중복 당선 사례를 찾을 수 없다. 선후감에 따르면, 특정 당선자의 작품 두 편이 모두 당선될 만한 수준이었으나 다른 응모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편만 당선작으로 선택했다고 한다.²⁷⁾ 이러한 진술로 미루어 볼 때, 작문은 최대한 여러 응모자에게 당선 기회를 주는 것이 심사 방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성인의 모작(模作)을 아동 명의로 응모한 것과 아동답지 못한 너무 능난한 솜씨로 된 것은 당선작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응모된 작품의 교졸(巧拙)과 응모자의 학년(연령) 등을 참작하여 고선하겠다며 심사 방침을 명시하였다.²⁸⁾ 이러한 선후감의 내용을 종합하면, 아동이 직접 창작한 작품을 대상으로 작품의 수준 및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심사하되 최대한 여러 당선작을 내는 것이 작문의 심사 원칙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심사를 거쳐 신문 지면에 발표된 작문 부문 당선작의 내용은 자연을 묘사한 것과 아동의 일상을 다룬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자연을 묘사한 작품은 해와 달, 계절별 자연의 풍경, 새벽이나 밤의 풍

25) 1927년 1월 4일 『동아일보』 부록 其一 3면 어린이란에는 황주 동명학원의 승성 실(承成實)이라 소개되며 작품이 함께 실린다.

26) 단편소설의 경우 한설야가 1927년, 1928년에 중복 당선되었고, 방휴남이 1930년에 이어 1934년에도 당선되었다. 동화는 김철수와 이덕성이 1930년과 1931년 두 번 당선되었고, 노양근은 1931년, 1934년 1935년, 1936년 네 차례나 당선되었다.

27) 선자, 「신춘문예선후감(8) 동요와 작문」, 『동아일보』 1936년 1월 12일 석간 4면. “作文 當選 韓次順 嬢은 將來가 크게 囑望되는 少女인 것이 이번 應募作品 『편지』와 『病』에서 充分히 證明되었다. 『편지』는 首席으로 當選이 되고 『病』은 選에 들지 못하였으나 그것은 『病』이 作品으로 떨어진다해서가 아니라 실상 韓次順 嬢은 쓰면 쓰는 대로 다 當選될 만한 솜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므로 두 篇 中에서 한 篇만을 選에 너코 次席은 다른 사람에게 사양하도록 한 것이다.”

28) 일선자, 「신춘작품선평3」, 『동아일보』 1938년 1월 12일 조간 4면.

경, 동물의 모습 등을 그려냈다. 「해님」과 「비개인 달밤」이 해와 달의 모습을 묘사했다면, 「새해」, 「겨울」, 「봄소식」, 「초설」, 「소낙비」, 「첫겨울」, 「씨원한 바람」은 계절별로 자연의 풍경을 묘사하였다. 그리고 「겨울아침」, 「새벽」, 「달밤」, 「농촌의 아침」, 「눈 오는 밤」은 특정한 시간대의 외부 풍경을 주로 묘사하였다. 「기러기」, 「홍시」, 「우리집 개」, 「강아지」, 「어린염소」, 「겨울참새」, 「까치」, 「우리집 개」, 「우리개」, 「늑준 멧새」는 강아지, 염소, 참새, 까치, 기러기와 같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이들 작품은 단순히 자연을 묘사하는 데에 그치지 않았다. 자연을 바라보며 느낀 감정이나 특정 현상에서 촉발되는 정서를 구체적으로 그려냈다. 예컨대 자연풍경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거나, 자연현상에 대한 감사를 표하거나,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자연을 본받아 앞날을 설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거나, 자연 묘사에서 연상된 기쁨이나 슬픔 그리고 그리움 등의 구체적인 정서를 표현하였다.

원하로 구진비를 나리든 검은 한울은 시침을 쭉 켜고 천연히 새-맑안 얼굴을 내노았다 여들애스날의 조각달은 아릿다운 빗을 비초이며 고요히 푸른 半空에 걸렸다 비인 눈들을 건너서는 압산과 南浦는 자옥 한 밤안개에 싸여 쑤나라의 동산과 가티 아릿다운 동산을 일윳다 더구나 보-안 안개의 동산-거기에 만발한 電燈불-일층 더 쑤동산을 장식한다 압뭇 속에 잠긴-불꽃이 만발한 건넌 언덕의 마을-아! 그 얼마나 아릿다운지 필설(筆舌)로 능히 다-형용키 어렵다 도편아까시아숲(林)을 거쳐 안개고개 넘어로-은근히 새여오는 레배당의 종소리는 詩의 詩趣를 도아 주며…… 압마을에서 들려오는 어린 벗들의 부르지즘은 말할 수 업는 넷날의 어린 그 시절을 한업시 그림게 하여준다 안개나라의 南浦서 은은히 들려오는 군악소리에는 저절로 엇개춤이 웃속웃속난다…… 압마을에선 멀-리 멀-리 개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려오고 뒷집에 다듬이 소리는 장단을 맞추며 요란히 울려나온다…… 어대서 『싸요령』의 비곡(悲曲)이 들려온다…… 어린 벗들의 날뛰는 소리 요란히도 들린다 곰곰히 생각하니 알 수 업는 넷날의 追憶-달밝은 밤마당스가에서 벗들과 날뛰든 그

어린 시절 눈압해서 아물거리며 안타까웁게도 그 시절이 그리워진다
 아! 냇날의 어린시절 벗들과 마당^ㅅ가에서 날뛰며 놀든 그 시절 그새보
 든 저 달님은 오늘도 변함업진만은 냇날의 그리운 벗들은 아! 어대로 갖
 는가? 냇날의 어린 그 시절 아! 어대로 갖는가 생각토새 냇날의 어린 그
 시절이 그리운 안타까운 追憶의 눈물 썬이다 아! 이 밤은- 안타까운-
 追憶의 밤! 追憶의 밤!²⁹⁾

위의 작품은 『비개인 달밤』의 전문(全文)이다. 작품의 전반부는 비 온 뒤의 달밤 풍경을 묘사하고 있으며, 후반부는 벗들과 마당에서 뛰어놀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는 다른 작품인 『눈 오는 밤』 역시 눈 내리는 밤의 풍경을 먼저 묘사한 후, 2년 전 세상을 떠난 언니와의 추억을 회상하며 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였다. 이처럼 자연을 묘사한 작문은 자연 묘사와 정서 표현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그리움이나 슬픔 그리고 기쁨 등 구체적인 감정을 묘사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동물의 모습을 그린 작품의 경우도 대부분 소박하지만 솔직한 아동의 감정을 그려내었다. 『기럭이』는 밧에 걸린 기럭이를 구해주고 집에서 기르며 정들었으나 어느날 제 동무를 따라 어디론가 날아간 사연을 전하며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홍시』는 금년 처음 열매를 맺은 감나무를 보며 감이 익으면 아버지께 드릴 생각을 했는데, 까막까치가 다 쪼아먹어 원통한 심정을 표현하였다. 『우리집 개』(1932), 『강아지』, 『우리집 개』(1934), 『우리개』는 강아지의 모습을 묘사하고 강아지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³⁰⁾ 『겨울참새』, 『까치』, 『뇌준 멧새』에는 동물에 대한 동정심이

29) 정명걸, 『비개인 달밤』, 『동아일보』 1929년 1월 28일 3면.

30) 특이한 점은 1932년 당선작 『우리집 개』와 1934년 당선작 『우리집 개』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이다. 작자가 학교에 갈 때 강아지가 자꾸 따라와 집으로 쫓았다는 일화에서부터 학교에서 돌아와 집에 이르면 강아지가 반긴다는 점, 그리고 비오는 날에는 강아지가 흙밭로 의복을 더럽혀 난처하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아지를 이해하고 그 모습까지 귀엽다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이 똑같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작문은 다른 모집부문과 달리 표절에 대한

드러나 있다. 배고픈 참새를 위해 쌀 한주먹을 먹이로 주었다는 것이나, 포수가 까치를 총으로 겨누자 돌을 집어던져 까치를 구해주었다는 것이나, 먹이를 찾으러 왔다가 밧에 걸린 멧새를 동정하여 살려주었다는 내용은 공통적으로 동정심이 부각된 사례이다.

한편 아동의 일상을 다룬 작품은 주로 가정이나 학교를 배경으로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 벌어진 사건을 내용으로 삼았다. 『하모니가』, 『묵은 일기책』, 『새동생』, 『집 지키는 밤』, 『천당으로 간 동생』, 『우리 형님』, 『내동생』, 『후회』, 『거울』, 『어머니』, 『편지』, 『할머니 생각』, 『우리 언니』, 『어렸을 적 사진』 등이 가정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이들 작품은 할아버지나 할머니, 아버지나 어머니, 형과 누나, 언니와 오빠, 동생 등 가족 간에 있었던 구체적인 일화를 기록하고 그 일화에서 느낀 감정을 주로 표현하였다. 대표적으로 동생에 대한 대견함과 기쁨, 동생이 태어난 일에 대한 기쁨과 감격, 동생과 다툰 것에 대한 후회와 반성, 조부모와 부모님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

학교를 배경으로 한 작품에는 『그 어느날 밤』, 『깃븐 봄』, 『가련한 동모』, 『선생님 생각』, 『나는 책상입니다』, 『밤』 등이 있다. 이들 작품은 학교 시험, 학교 수업, 졸업이나 입학 등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을 통해 학생으로서의 포부, 학교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 친구들과의 우정 등을 담아냈다.

先生님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시며 어찌케 하시고 계신지! 밥이나 잘 잡수시며 밤에 잘 자르시거나 하시는지?

우리 先生님은 순사 두 사람이 와서 경찰서로 다리고 갔섯다 오늘이 벌써 열흘이 되어도 오시지 않으며 소식조차 알 수 없다

순사가 다리고 간 사람은 모다 류치장에 가둔다니 아마 先生님도 류치장에 들어가섯겟지! 한번 류치장에 갔다운 사람의 말을 들으면 대단이 치웁고 빈대와 이가 많으며 또 밥 먹고 잠자는 데서 오좁과 똥을 썩

경계가 그리 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니 쿠린내도 몹시 날 터인데! 얼마나 몸이 괴로우시라? 본래 체질이 약하신 어른이! 그러케 될 줄 알았드면 先生님이 『돈 없는 우리』라는 作文 문제를 내어도 우리가 잣지나 말았을 것을!

『돈없는 우리』라는 문제가 무슨 흠되고 안된 말이 되어서 그러케 경찰서까지 다리고 갖을까?

우리를 잘 가르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든 先生님!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이면 하학 時間에 우리들을 강당에 모와얏치고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 주시고 日氣가 조흔 날이면 운동장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유희도 하시고 썰도 차시든 先生님! 언제나 돌아오시어서 우리들을 질겁게 하실는지? 오늘같이 바람이 몹시 불고 눈이 자꼬 나리는 날이면 란로 앞에 있는 우리가 이러케 치웁거늘! 류치장에 갇히어 있는 先生님은 얼마나 치우시라?³¹⁾

위의 작품은 「선생님 생각」의 전문이다. ‘돈 없는 우리’라는 주제로 작문을 출제했다는 이유로 순사에게 잡혀간 선생님의 사연을 전하고, 과제를 수행한 자신에 대한 자책, 유치장에 갇힌 선생님에 대한 염려, 선생님에 대한 그리움 등을 담았다. 이 작품은 작문이 사건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현실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까지 가능했음을 보여준다. “『돈없는 우리』라는 문제가 무슨 흠되고 안된 말이 되어서 그러케 경찰서까지 다리고 갖을까?”라는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어떠한 현상에 대해 기술하다가 의문점을 발견하고, 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현상의 이면에 대해 탐구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비판의식이 길러질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 작품에서 다룬 내용과 유사한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 1931년 2월 27일 3면에는 「야학 선생 검속」이라는 제목으로 학생의 작문이 구실이 되어 야학 선생을 검속 취조중이라는 기사가 실렸다.³²⁾ 이는 작문

31) 장두성, 「선생님 생각」, 『동아일보』 1932년 1월 8일 4면.

32) “북청군 읍내 천도교당에서 북청소년군 주최로 야학을 설치하고 연령 초과자와 학비 부족으로 보교에 들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모아노코 밤마다 주문국이란 당년 20세 소년이 무급으로 자진 교수하여 오든 바 지난 20일 오후 2시에 3학년생의 작문을 보고 점수를 주는 중 어떤 형사가 와서 보고 그 익일인 21일에 주문

이 다룰 수 있는 소재 및 주제가 매우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충분히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낼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한다. 이처럼 작문은 아동들의 비판의식을 함양하는 데에도 좋은 훈련이 될 수 있었다.

『나는 책상입니다』는 작문의 또다른 가능성을 보여준다. 기존의 작문과는 달리 사물을 화자로 설정하여 이야기의 차원을 확장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작문 당선작들은 작자 자신이 화자가 되어 대상을 묘사하거나 간혹 대상을 의인화하는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이 작품은 가난한 동네 야학교의 ‘책상’을 화자로 설정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과 열정을 다해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책상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대견해 하며 이들이 장차 훌륭하게 성장하기를 응원하는 ‘책상’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졌기 때문에 주제의식을 전달하는 데에도 효과적이고, 아동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데에도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문이 객관적인 진술과 정서 표현, 그리고 현실 비판을 넘어 상상력에 기반한 문학적 글쓰기로 발전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작문은 자연 묘사와 일상 체험을 막론하고 아동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매년 작문을 모집한 의도가 글쓰기를 통한 아동의 정서 함양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작문이라는 장르가 지닌 속성도 지속적인 작문 시행의 이유가 될 수 있다. 그것은 단순한 묘사나 사실에 대한 기록 등 기초적인 글쓰기를 토대로 하여 비판적 글쓰기나 문학적 글쓰기 등으로 다양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확장성에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양파(陽波)는 아동의 작문을 문예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작문 지도를 문예 교육의 일익(一翼)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며 보통학교에서 조선어 작문 시간을 적게 배정한 것에

국 군과 학생 3인을 불러다 그 작문에 대한 심문이 잇는 후 선생 되는 주문국을 검속 취조중이라 한다”

대해 비판하고 교육정책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어서 그는 현행 작문 교수법이 저학년은 철자 학습에 치중하고 고학년은 산문에 그치는 점을 지적하며 읍문에 대한 습작까지 지도하여 아동의 표현력과 감상력을 배양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였다.³³⁾ 이밖에 아동기의 독서 체험 및 작문 습작이 작가라는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진술한 소설가 엄홍섭³⁴⁾이나 시인 모운숙³⁵⁾의 회고 역시, 작문의 역할 및 그 가치를 잘 보여준다.

식민지 시기 총독부의 교육 정책은 일본어 교육을 장려하고 조선어 교육을 폐지하는 것이었다. 1911년 1차 조선교육령 시행 이후 ‘조선어 급 한문’ 과목만 제외하고 모든 교과서는 일본어로 편찬되었고, ‘조선어 급 한문’ 과목의 시수도 점점 줄어들다가 3차 교육령기인 1930년대 후반에는 완전 폐과되기에 이른다.³⁶⁾ 공교육 기관에서의 조선어 교육이 처한 열악한 조건³⁷⁾을 고려할 때 『동아일보』가 지속적으로 아동의 작문을

33) 양파, 「조선교육문제-내가 체험한 교육계의 불합리3」, 『동아일보』 1931년 11월 17일 5면.

34) 엄홍섭, 「나의 수업시대-작가의 올챙이 때 이야기(8)」, 『동아일보』 1937년 7월 31일 조간 7면. 그는 소학교 담임선생의 영향으로 세상 이야기, 세계 각국의 동화, 취미 과학에 대한 것을 많이 들으며 독서에 취미가 붙고 애착을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작문 시간이 가장 신이 났고 작문을 짓기만 하면 갑상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형의 영향으로 독서와 시 창작에 빠져 신문에 당선된 일도 있었다고 회고하였다.

35) 모운숙, 「나의 수업시대-작가의 올챙이 때 이야기(13)~(14)」, 『동아일보』 1937년 8월 10일~11일. 그는 학업에 관심이 없었으나 서울에서 함흥으로 부임한 선생님의 영향으로 원래부터 취미가 있던 수신과 작문에 더욱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고 회고하였다. 선생님에게 서적을 빌려보며 문학 공부를 하다가 학생회 문학부에 들어 시 창작을 하고 잡지까지 발간했음을 밝히고 있다.

36) 김혜정, 「일제 강점기 ‘조선어 교육’의 의도와 성격」, 『어문연구』,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3. 446-450쪽.

37) 이혜령, 「한글운동과 근대 미디어」, 『대동문화연구』 47,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4. 257-258쪽. 그는 조선어 교육의 열악함으로 흥미 없는 교과서, 조선인 교원수의 부족, 조선어 과목 천대 분위기, 일본어 위주의 교육용어 등을 꼽고 식민지 교육의 차별적 구조를 지적하였다.

모집, 발표한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신문 매체가 학교 교육을 대신하여 조선어 글쓰기를 존속시켰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당대인의 증언을 참고할 만하다. 휘문고보의 교원이었던 김장섭은 학교 교육의 보충을 위하여 아동의 문학열을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문학이 인간의 사고력과 사색력을 길러주기 때문에 아동기의 문학교육이 필요하며, 조선의 아동은 학교에서 조선어를 일주일에 3시간 정도밖에 배우지 않아 소학교를 마쳐도 편지 한 장 쓰지 못하므로 장래의 문학 발전을 위해서 소년 시대부터 문학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문학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조선의 현실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므로 신문과 잡지가 이를 계획적으로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⁸⁾ 또한 정인섭 역시 작문을 통한 모어 습득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그는 세계 각국이 모어 학습에 작문과 독본을 활용하여 예술적 지도방법을 실천함으로써 학도들의 미적 감상력과 창조성에 의한 표현 기능을 완성하고자 노력한 다면서, 우리도 이를 받아들여 근대적 교육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⁹⁾ 이처럼 『동아일보』의 작문은 조선어를 사용하기 어려웠던 식민지 시기에 아동으로 하여금 조선어 학습의 한 방안이 되었다는 점에서 국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동아일보사는 한글을 보급하여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 브나로드 운동을 주관하였다.⁴⁰⁾ 이와 더불어 다양한 한글 관련 기획란을 마련하여 언문철자법의 보급에도 앞장섰다.⁴¹⁾ 그리고 아동을 위한 독립된 지면을 마련하여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아동들이 직접 창작한 작품

38) 김장섭, 『소년문학운동 가부-학교교육의 보충을 위하여』, 『동아일보』 1927년 4월 30일 낙성기념호 其四 2면.

39) 정인섭, 『문예적 교육의 처지와 소감(4)』, 『동아일보』 1929년 5월 7일 3면.

40) 정준희, 『1930년대 브나로드 운동의 사회적 기반과 전개과정』,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41) 임동현, 『1930년대 조선어학회의 철자법 정리·통일운동과 민족어 규범 형성』, 『역사와 현실』, 한국역사연구회, 2014. 429-462쪽.

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작문은 이러한 일련의 교육 사업의 차원에서 시도되었다. 신춘문예 작문 수상작은 당선 외에도 가작과 선외작을 최대한 지면을 통해 발표하였다. 또한 별도의 현상모집을 시행하여 꾸준하게 아동의 창작물을 모집, 발표하였다. 결국 조선어 교육의 열악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신문지면을 통해 최대한 많은 조선어 작품을 노출함으로써 조선어 교육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다.

『동아일보』의 편집진은 계몽의 대상으로 여성과 아동을 호출하고, 문명화를 이룩할 주체로 아동을 지목하며 아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지면 운영 방침을 세워 아동을 위한 독자적인 지면을 제공하는 한편 아동작품을 지속적으로 수급함으로써 이후 아동문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작문은 아동의 초보적인 글쓰기 능력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현실 비판 및 상상력에 기반한 문학적 글쓰기로 확장될 수 있었기에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실제로 작문은 조선어를 사용하기 어려웠던 식민지 시기에 아동으로 하여금 조선어 학습 및 창작의 한 방편으로 기능하기도 하였다.

신춘문예 작문 당선작의 내용은 자연 묘사와 일상 체험이 주를 이루었다. 이들 작품은 공통적으로 아동이 느낀 감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데 치중하였다. 작문을 시행한 의도가 글쓰기를 통한 아동의 정서 함양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광수는 근대적 사회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감정 규범으로 정과 동정(sympathy)을 제시하였다. 인간은 동정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보편적 인간으로서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인물들이 사람임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본 것이다. 근대적 사회는 바로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형성되는 새로운 형태의 결합체이다. 그는 정(情)의 능력을 확대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연대성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때 동정은 독자가 발휘해야 할 능력이자 작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였다.⁴²⁾ 결국 이광수는 정과 동정

42) 김현주, 『이광수와 문화의 기획』, 태학사, 2005, 175-193쪽; 『문학·예술교육과

의 함양을 통해 근대적 주체를 만들고자 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실천 수단으로 작문을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나가며

『동아일보』는 창간 이래 독자 확보 차원에서 독자투고와 현상문예 등 다양한 독자 참여 제도를 시도하였다. 신춘문예는 이러한 제도 시행을 통해 독자와 소통하면서 충분한 제도적 보완을 거친 후, 신진 작가를 발굴하겠다는 목적을 내세우며 등장하였다. 이는 독자 참여 제도의 기능이 ‘독자’ 확보에서 ‘작가’ 확보로 변모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동작품은 예외였다. 아동작품의 모집부문 중 작문, 습자, 자유화는 철저하게 아동에게만 응모 자격을 부여하였으며, 신인의 발굴과는 전혀 다른 목적에서 시행되었다.

『동아일보』는 신춘문예의 도입 초기부터 문예계, 부인계, 소년계 등으로 독자의 층위를 구분하여 작품을 모집, 발표하였다. 이는 여성과 아동이라는 새로운 독자층을 발굴하여 가정란과 아동란을 신설한 매체의 지면혁신 정책과도 연동되는 작업이었다. 문화주의를 표방한 『동아일보』는 계몽의 차원에서 여성과 아동을 호출하였다. 민족을 개량하여 문명화를 달성하기 위해 미래세대인 아동을 교육함으로써 근대적 주체를 양성하고자 한 것이다. 신문의 잠재적인 독자층 확보를 위해서나 문명화를 추진하기 위한 교육적 필요에 의해서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문장 교육은 중요한 과제였다. 작문은 이러한 복합적인 배경에서 시행되었다.

1927년부터 1940년까지 게재된 신춘문예 작문 당선작은 62편이다. 이들 작품은 자연 묘사와 아동의 일상을 주로 다루었다. 자연 묘사의 대상은 해와 달, 계절, 새벽이나 밤의 풍경, 동물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아동

‘동정(同情)’, 『상허학보』 12, 상허학회, 2004. 175-176쪽 참조.

의 일상은 가정이나 학교를 배경으로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작문은 단순히 자연을 묘사하거나 사건을 기록하는데 그치지 않고 각 상황에서 촉발된 감정을 드러냈다. 기쁨이나 슬픔, 그리움이나 동정 등 아동의 정서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작문을 시행한 의도가 글쓰기를 통한 아동의 정서 함양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아일보사는 브나로드 운동을 주관하여 문맹률을 낮추고, 다양한 한글 관련 기획란을 마련하여 언문철자법의 보급에 앞장섰다. 그리고 아동의 문학열을 고취하기 위해 독립된 지면을 마련하여 아동들에게 읽을거리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작문은 근대적 주체를 만들고자 하는 일련의 아동 문장 교육 사업의 차원에서 시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작문은 습작을 통한 조선어 글쓰기의 보급 및 아동 계몽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아동 계몽의 실질적인 내용은 정과 동정의 함양이었다. 이광수는 일찍부터 아동 교육에 관심을 두었으며, 신문의 지면 개편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그는 근대적 사회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감정 규범으로 동정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정과 동정의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근대적 주체를 만들고자 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실천 수단으로 작문을 활용한 것이다. 작문 부문 당선작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초기 편집진의 이러한 의도가 신춘문예 시행동안 지속적으로 관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 『학지광』, 『청춘』
동아일보사편집부, 『동아일보사사』 권일(1920~1945년), 동아일보사,
1975
조선일보80년사편찬실, 『조선일보80년사(상)』, 조선일보사, 2000

2. 참고 자료

김석봉, 「식민지 시기 『동아일보』 문인 재생산 구조에 관한 연구」, 『민
족문학사 연구』 32, 민족문학사학회, 2006, 153-180쪽.
김석봉, 「식민지 시기 『조선일보』 신춘문예의 제도화 양상 연구」, 『한국
현대문학연구』 16, 한국현대문학회, 2004, 185-220쪽.
김영민, 「근대 매체의 독자 창작 참여 제도 연구(1)」, 『현대문학의 연구』
43, 한국문학연구학회, 2011, 97-128쪽.
김영민, 「한국 근대 신년소설의 위상과 의미」, 『현대문학의 연구』 47, 한
국문학연구학회, 2012, 127-158쪽.
김영철, 「신문학 초기의 현상 및 신춘문예제의 정착과정」, 『국어국문학』
98, 국어국문학회, 1987, 211-238쪽.
김춘희, 「한국 근대문단의 형성과 등단제도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 논
문, 2001.
김현주, 「문학·예술교육과 ‘동정(同情)」」, 『상허학보』 12, 상허학회,
2004, 167-193쪽.
김현주, 『이광수와 문화의 기획』, 태학사, 2005.
김혜정, 「일제 강점기 ‘조선어 교육’의 의도와 성격」, 『어문연구』, 한국어
문교육연구회, 2003. 431-455쪽

- 박헌호, 『동인지에서 신춘문예로-등단제도의 권력적 변환』, 『대동문화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6, 5-40쪽.
- 손동호, 『『동아일보』 소재 ‘독자문단(讀者文壇)’ 연구』, 『한국민족문화』 53,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4, 113-139쪽.
- 손동호, 『『동아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연구』, 『근대한국학연구』 21,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2016, 73-103쪽.
- 손동호, 『식민지 시기 『매일신보』의 신년현상문예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20(2), 한국근대문학회, 2019, 235-270쪽.
- 손동호, 『식민지 시기 『조선일보』의 신춘문예 연구』, 『우리문학연구』, 우리문학회, 2020, 241-273쪽.
- 이재복, 『신춘문예의 문학제도사적 연구』, 『한국언어문화』 29, 한국언어문화학회, 2006, 365-391쪽.
- 이혜령, 『1920년대 『동아일보』 학예면의 형성과정과 문학의 위치』, 『대동문화연구』5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5, 95-133쪽.
- 이혜령, 『한글운동과 근대 미디어』, 『대동문화연구』 47,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4, 249-290쪽.
- 이희정, 『1920년대 『매일신보』의 독자문단 형성과정과 제도화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 33, 한국현대문학회, 2011, 97-133쪽.
- 이희정, 『1920년대 식민지 동화정책과 『매일신보』 문학연구(1)』, 『어문학』 112, 한국어문학회, 2011, 351-379쪽.
- 이희정, 『1920년대 식민지 동화정책과 『매일신보』 문학연구(2)』, 『현대소설연구』 48,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285-319쪽.
- 임동현, 『1930년대 조선어학회의 철자법 정리·통일운동과 민족어 규범 형성』, 『역사와 현실』, 한국역사연구회, 2014, 429-462쪽.
- 임원식, 『신춘문예의 문단사적 연구』, 국학자료원, 2003.
- 장신, 『1924년 동아일보 개혁운동과 언론계의 재편』, 『역사비평』, 75호, 2006, 5, 242-272쪽.

- 전은경, 『1910년대 『매일신보』소설 독자층의 형성과정 연구』, 『현대소설 연구』 29,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 107-132쪽.
- 정준희, 『1930년대 브나로드 운동의 사회적 기반과 전개과정』,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조재영, 『신춘문예 제도와 당선시 연구』, 퍼플, 2017.

<Abstract>

The Colonial Period Spring Literary Contest
System and Writing Education
- focused on “Dong-A Ilbo”

Son, Dong-Ho*

The Spring Literary Contest of “Dong-A Ilbo” appeared with the excavation of young authors. However, works for children were implemented for a purpose different from discovering new authors. “Dong-A Ilbo” recruited works by dividing the layers of readers into literary, ladies, and boys from the beginning of the Spring Literary Contest. It was a work in connection with the media’s paper innovation policy that created a family section and a children section by discovering a new readership of women and children. “Dong-A Ilbo”, which advocated culturalism, called women and children in the dimension of enlightenment. It aimed to cultivate a modern subject by educating children to improve the nation and achieve civilization. To secure a potential readership of newspapers, or because of the educational need to promote civilization, sentence education for children was an important task. The composition was conducted in this context. The winning work of the Spring Literary Contest mainly coped with the depiction of nature and the daily life of children. The composition did not stop at simply describing nature or recording events, but revealed specific emotions triggered in each situation.

* Yonsei University

Through this, it can be seen that the composition was aimed at cultivating children's emotions through writing in Korean (Joseoneo). The educational policy of the governor-general during the colonial period was to abolish Korean language (Joseoneo) education. In this situation, Dong-A Ilbo took the lead in spreading the Korean word spelling by managing the Vnarod movement and preparing various Hangeul-related planning sections. In addition, while providing reading materials to children, it recruited and published works in Korean (Joseoneo). The composition was attempted at the dimension of teaching sentences for children to create a modern subject. Lee Gwang-su, who hosted the Spring Literary Contest, was very interested in education for children, and was also involved in reshuffling sections of the newspaper. He presented affection and sympathy as a new norm of emotion necessary to form a modern society, and used his writing as a means of realization.

Key Words: Dong-A Ilbo, Spring Literary Contest, composition, children, affection, sympathy, Lee Gwang-su

■ 논문접수 : 2021년 3월 31일

■ 심사완료 : 2021년 4월 18일

■ 게재확정 : 2021년 4월 20일